

## “계란값 호황의 지속으로 입추 서서히 증가세 보여”

호황의 장기화로 채란업 패턴이 변하고 있다. 얼어붙은 가을입추열이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동절기를 맞아 풀리는 이상현상으로 어찌면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다. 부화장마다 동절기 준비하느라 식란처분 내지 노계도태로 병아리 생산을 줄인 탓도 있겠지만 의외의 경기활황 지속으로 이제는 입추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탓일까. 비위 있는 계사를 채우기 위해 중추병아리는 동이나고 병아리 입식을 서두르는 감을 느낀다.

그러나 지금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높아 디딤돌을 두드리는 입추를 해나가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역시 계란값이 좋을 수밖에 없다. 산란사료의 생산추세가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사료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추사료가 3,644 M/T으로 88년 동월대비 5.7%증가, 87년 동월 대비 22% 감소추세로 보아 병아리생산은 적정수준을 보이고 육추사료는 26,022 M/T으로 중대추사료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란사료는 119,319 M/T으로 88년대비 0.1%증, 87년 대비 11%의 감소추세를 보여 향후 산란사료의 큰폭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본 12월 계란값은 연말년시의 계란수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초순은 보합세에서 중순 이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벌써 계란값이 큰폭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큰폭의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소폭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리라 본다. 아직까지도 환우계의 수수료도 미미하지만 환우계에서 생산되는 계란생산량이 소량에 그치기 때문에 단시일내 물량증가는 힘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보다는 돌변의 소비위축만 생기지 않으면 당분간 현상태의 호황은 꺾이지 않을것 같다. 최근 비수기인 동절기에 입추열기가 살아나는 듯하다. 금년 총계입식수수로 보아 병아리 생산은 급속히 증가할수도 있어 과열입식열기는 서로가 자제하면서 입추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량중추분양  
봉래농장  
(0417)63-8402, 61-4870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단위 : 천수)

년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89	84.9	40.1	23.5	41.6	56.1	28.4	20.4	14.8	67.5	45.3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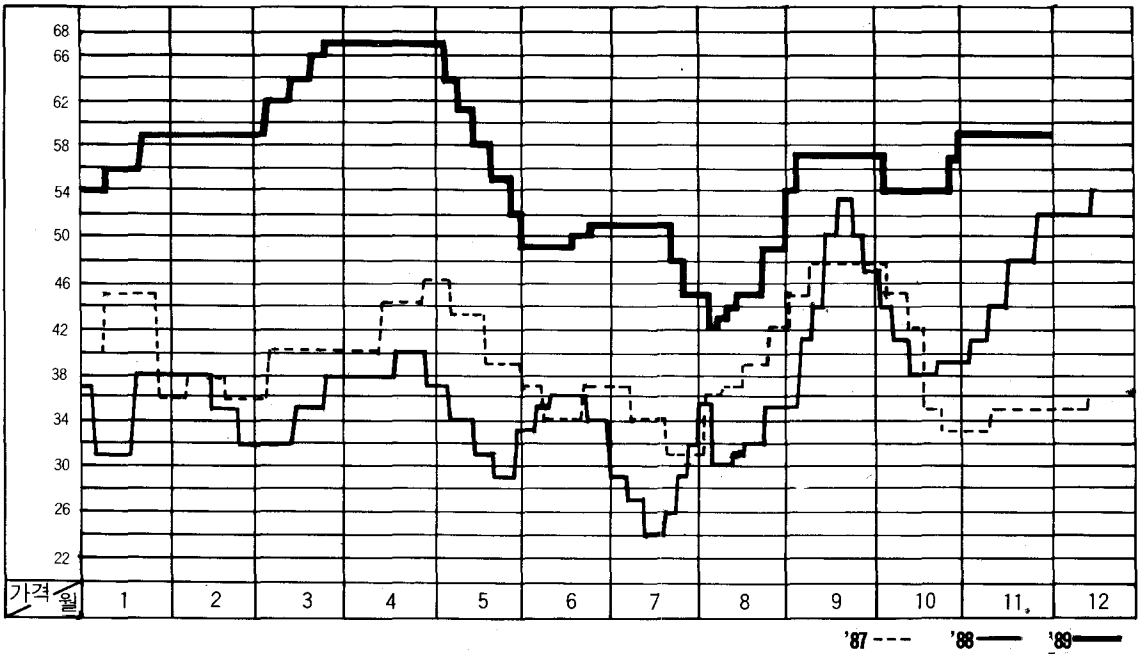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